

교회 소식

- ◎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지침 준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순절 21일 새벽기도성회(3/23(월)부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Driven예배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www.newhope.us/online)
- ◎ 2020년 여름 예과도르 단기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 송진영목사)
기간: 8월 17일(월)-8월 22일(토)
- ◎ 여름캠프, 여름성경학교 VBS 온라인 등록을 받습니다. (문의: 우문주전도사)
온라인등록: www.school.newhope.us
여름캠프: 7월 13일-7월 31일 (3주,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여름성경학교 VBS: 8월 3일-8월 7일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1. 새생명공부: 주일 오전 9시 30분 (신청: 황은미집사)
- 2. 3월 청소: 사랑구역, 충성구역
- 3. 토요(이번주) 중보기도 담당: 은혜②구역

<3월 행사>

- 1. 사순절 21일 새벽기도성회: 3월 23일(월)-4월 12일(주일)

<새소망교회 Youtube Channel>

- ◎ Youtube에서 "New Hope Church TV"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 온라인 예배: www.newhope.us/online 에서 예배가 실시간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예배(5:30AM), 금요일예배(8:00PM), 주일예배(10:30AM, 1:30PM)

<담임목사님 소개영상>

- ◎ Youtube에서 "C채널 방송 안인권목사" 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노방전도 일정표

□ 엘리펀시티 북데	□ 엘리펀시티 안아름	□ 엘리펀시티 푸레듀르	□ 케이펜스빌 안아름
첫째주: 믿음 ① 구역 : 믿음 ② 구역	첫째주: 충성 ① 구역 : 충성 ② 구역	첫째주: 사랑 ① 구역 : 사랑 ② 구역	첫째주: 은혜 ① 구역 : 은혜 ② 구역
셋째주: 감사 ① 구역 : 기쁨구역	셋째주: 영광 ① 구역 : 영광 ② 구역	셋째주: 승리 ① 구역 : 승리 ② 구역	셋째주: 화평 ① 구역 : 화평 ② 구역

이번주 구역 예배 장소

기쁨 구역: *가정예배	감사 ① 구역: *가정예배
믿음 ① 구역: *가정예배	감사 ② 구역: *가정예배
믿음 ② 구역: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 *가정예배

예배와 모임 시간

□ 주일예배	□ 새벽예배: 오전 5:30	□ 청년부예배: 오후 6:00 (토)
1부: 오전 8:00	□ 금요찬양: 오후 8:00	□ 학생부예배: 오후 1:30 (토)
2부: 오전 10:30	□ 구역예배: 오후 7:30	□ 주일학교: 오전 10:30 (주일)
3부: 오후 1:30 (영어)		

목회 칼럼

군중 성도와 군사 성도

기독교는 단순히 수(數)에 의존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무장한 소수가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발휘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종종 많은 무리를 규합하기보다 수를 줄여 일하실 때가 많았다. 예수님은 딱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모두가 광활 놀랄 만한 이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라고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아오라고 하셨다.

수천 명이 기쁨을 하고 다 돌아왔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6:66)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사람들을 모으는데 실패하셨다. 예수님이 어적을 베푸시고 마음에 위로가 되는 무난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무리는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십자가)을 지적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물러갔다. 즉,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자 모두를 떠나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여 진리 선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는 고인 수로 정당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여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요한복음 6장에서 군중들이 예수님께 운집한 이유가 무엇인가? 표적 때문이었다. 각종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오병이어서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든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달아로다" (요6:2,26)

현대 교회의 약화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떡을 주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는 예시야를 원했다. 자신들의 이러한 끝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예시야로 세운 왕은 '우상'이다. 오세가 십계명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편에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그들 나름의 하나님을 요구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이다. 인간의 필요에 아부하는 종교는 '금송아지 종교'요 '우상의 종교'이다. 그것이 비록 여호와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해도 내용은 우상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것은 현실이 점점 인간의 욕구만을 채우는 '금송아지 종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거나 떡을 먹고 배불러 모인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셨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말씀의 요구에 도전받아 정결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편적인 가치의 기독교에 안주한다. 즉, 윤리로서의 기독교에 안주한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외치며 어머니 주일에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윤리 강조를 기독교 정체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삼는다. 자녀양육, 효, 정직은 기독교만이 아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윤리이다. 여기에 안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인간은 죄인으로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죽을 이후에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실재한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여의 기적 이 후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고 헌신을 요구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다들 떠나갔다. "제자 중 여럿이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6:60,66) 떡을 먹을 때는 쉽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이야기하자 어렵다고 한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자"라고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약하다"며 뒤로 빠진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다. 불순종의 완곡한 표현이다. 성경의 겸인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모습이다. 무장 해제된 삼손과 같이 무력한 존재인 것이다. 참 진리가 선포되면 기도운의 3백 용사처럼 수가 줄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필박이 있고 진리가 선포되면 성도의 수는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약해진다.

진리로 인하여 수가 줄고, 진리를 인하여 수가 늘어난다. 이 진리를 유념해야 한다. 성도는 군중이 아니라 군사이다. 군사는 필박이라는 연단을 능히 이긴다. 오히려 강해진다. 믿음의 강화는 전력의 강화이다. 전력의 강화는 구원의 수를 더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16:5)



예배 순서

제 1983 호

3월 22일 2020년

집례 : 안인권 목사 (1, 2부)
Rev. Joe Ahn (3부)

* 찬 송 Precessional Hymn	-----	고개들어	-----	다같이 Congregation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	다같이 Congregation
기 도 Prayer	-----	합심기도	-----	다같이 Congregation
* 봉 헌 Offering	-----	주가 일하시네	-----	다같이 Congregation
성 경 Scripture	-----	1,2부: 마 16:21-27 3부: Hebrews 12:18-29	-----	집례자 Presider
설 교 Sermon	-----	1,2부: 나를 따라 오려거든② 3부: Midterm	-----	안인권 목사 (1,2부) Rev. Joe Ahn (3부)
광 고 Announcement	-----		-----	집례자 Presider
* 찬 송 Hymn	-----	오직 믿음으로	-----	다같이 Congregation
* 축 도 Benediction	-----		-----	안인권 목사 (1,2부) Rev. Joe Ahn (3부)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예배성공 · 기도승리 · 말씀순중 · 복음증거

목표 : ① 천배 부흥과 복의 통로가 되자
② 기도자 7000명
③ 전도자 2000명

실천사항 :
① 매일증거
② 매일기도
③ 매일순중
④ 응답(기도)의 통로
⑤ 기쁨(성령)의 통로
⑥ 영광(감사)의 통로
⑦ 축복(순종)의 통로
⑧ 생명(의생)의 통로

4대 명령 : 예배성공, 기도승리, 말씀순중, 복음증거
3대 사랑 : 하나님사랑, 영혼사랑, 교회사랑
3대 기준 : 하나님영광, 교회유익, 성도축복
3대 의무 : 전도, 봉사, 교육
3대 축복 : 주일, 주의 것, 주의 중

새소망 성도의 확신 : 구원의 확신, 축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새소망 성도의 자세 : 긍정적, 적극적, 도전적
새소망 성도의 정신 : 포용력, 결단력, 인내력

지난주 설교 요약

나를 따라 오려거든①(마16:21-27)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① - <죽기 위해 사는 삶과 살기 위해 사는 삶>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였다. 원인과 이유를 막론하고 육신의 종말은 죽음이다. 정해진 기간까지 목숨을 사용하다 목숨이 소진되면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목숨의 사용 결과는 두 가지이다. 영원히 사는 결과 영원히 죽는 결과이다. 구원받지 못한 삶은 영원히 죽는 삶이며 구원받은 삶은 영원히 사는 삶이다. 구원 여부에 따라 살기 위해 사느냐 죽기 위해 사느냐가 결정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② -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게 하는 삶> 피할 수 없는 생존경쟁의 속성은 이해관계의 경쟁이며 생사관계의 경쟁이며 승부의 경쟁이다. 나의 유익은 남의 손해가 되고 나의 승리는 남의 패배가 되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이유이다. 불신 세계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존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③ - <남을 살게 하기 위해 내가 죽는 삶>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다른 영혼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인류 구원에 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박으셨다. 불신자의 손에 못박힌 것이 아니라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손에 의해 못박히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④ -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왕궁은 세상의 영광을 상징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삶이 있고 세상의 영광에 있는 삶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삶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42:8)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⑤ - <왕궁을 향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고난과 수고와 희생을 피하며 남에게 전가 시키고 자신은 그 열매만을 차지하려 한다. 영광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영광의 추구는 남의 희생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기대하는 바 영광, 승리, 행복이 아니라 비참함, 패배, 불행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길① -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 어려운 길, 고난(고통)의 길이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길이다. 인간 가운데 누구도 그 길을 갈 사람이 없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눅13:7)고 예고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한결같이 맹세했다. 그러나 마26:56에 보면 다 도망 가 버렸다.

예수님의 길② - <하나님의 계획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을 간다. 자기의 계획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의 길이 있다. 자기 계획의 길은 아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모르는 길이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비록 모르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길을 간다면 아는 길을 가는 것이다.

제 삼 일에 - <계획의 완전성> 하나님의 계획의 필수 요소 두가지가 있다. 시간과 장소이다. 필수적으로 시간 계획과 장소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계획에도 시간 요소가 철저히 반영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성취가 보장 되어있다. 사람은 일생을 산다. 그 일생이 완전한 일생이 되느냐 불완전한 일생이 되느냐는 그 계획이 누가 계획한 것이냐에 있다.

제 삼 일에 - <계획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은 시행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반면에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시행 주체가 사람이다. 사람이 성취해야 한다. 사람 스스로가 성취를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계획에 의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사는 사람이 있다. 성취가 보장 되는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며 보장 없는 삶이 자신의 계획에 의한 삶이다.

다시 사는 길 -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가시는 것이다. 알고 가는 삶이 있고 모르고 가는 삶이 있다. 주님이 가시는 과정은 모든 인생이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그 후에 부활하는 과정은 주님만의 과정이 아니다. 모든 인생은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알고자 하면 알고 살고자 하면 얻는다.